

女性教育의 요람, 釜山女大

吳 泰 均

(釜山女大 總長)

1. 沿革과 現況

본교는 女性教育의 불모지인 釜山에 여성 전문적 직업고등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64년 1월 5개 학과를 중심으로 부산여자초급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개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9개 학과에서 11,000여 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오늘도 이 나라의 각계 각층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본교의 역사는 '64년 초부터 '69년 말에 이르기까지 연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여명기', '69년 12월부터 '92년 3월까지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발전 준비기', 그리고 '92년 4월부터 연산 캠퍼스와 백양 캠퍼스에서 시작되는 종합대학교 승격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교는 '64년부터 시작된 여명기에 흥익인간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및 중등 교육을 담당할 인재 양성과 여성의 전문적 직업고등교육을 실시하려는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가정·보육·국문·영문 그리고 관광 등 5개 학과를 중심으로 경남지방 유일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출발

하였다. 또한 '65년 2월에는 방송신문과와 상과를 증설하여 명실상부한 實用主義 여성교육을 실천하며 '70년까지 1,215명의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교육의場に 뚜렷한 획을 긋는 장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69년 본관건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해 12월에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아 가정학과·식품영양학과 등 자연계열 2개 학과와 미술학과·음악학과 그리고 체육학과 등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예체능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한 정규대학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의 實用主義 교육에서 축적된 實事求是의 심오한 학문에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경남지방 유일의 정규 4년제 여자대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증과와 증원으로 발전속도를 가속시키면서 인문계열·사회계열·자연계열·예체능계열·교육계열 등 5개 계열, 29개 학과를 가지고 양적·질적 발전을 계속해 오면서 종합대학의 꿈을 키워왔다. 이와 같은 雁渡人들의 꿈은 궤범동에 54만 평의 거대한 캠퍼스 부지를 마련하고 지난 '91년 1월에 1차동 건설 완료와 함께



▲ 釜山女大는 백양캠퍼스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양성은 물론 경남 女性教育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사진은 신축중인 백양캠퍼스 전경).

미술계열 3개 학과의 백양 캠퍼스 이전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면서 더욱 무르익어 갔으며, '92년 3월에 2차동의 완공으로 이루어진 자연계열 6개 학과의 이전은 수련인의 꿈을 더욱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92년 4월 1일부터 인가된 종합대학교 승격은 이제 우리 수련인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로 지역 발전에 동참케 하는 전기가 되었으며 여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이제 본교는 백양 캠퍼스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여성인력의 양성은 물론 愛鄉運動과 産學協同의 결정체로서, 경남지방 여성교육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교 3백여 교직원과 5천여 명의 재학생 그리고 만여 명의 졸업생은 한마음으로 대학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지금 백양 캠퍼스에서 하나하나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2. 教育目標 및 方向

본 대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는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도야하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眞·善·美·信·愛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과 교훈을 바탕으로 본교는

각 계열별로 학과 나름대로 독자적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實事求是라는 교육의 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본교는 사범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어 각과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직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간 양성된 수많은 교사들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후진양성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활동은 대학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社會奉仕에는 다소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봉사 기능의 확충은 앞으로 본교가 지향해 나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교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의 진로 개척을 위해 첨단학과의 증설·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의 증설은 물론 전문대학원의 신설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發展計劃 및 方向

본 대학의 발전계획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편의상 교육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物理的 環境 측면

지금까지 본교는 연산 캠퍼스에서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왔다. 이러한 꿈은 지난 '91년 9월 미술계열 3개 학과의 폐법동 신축교사도의 이전과 함께 새로운 백양 캠퍼스 시대의 문을 열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92년 3월 자연계열 6개 학과의 이전은

이제 본교가 종합대학교로 발전하는 본 계획도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본교는 현재 진행중인 신축교사 건설공사의 공정계획에 따라서 현재 연산 캠퍼스에서 백양 캠퍼스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한 백양 캠퍼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백양산에 세워진 校舎에는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강의실과 실험실이 규모있게 배치되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신축교사와 아름다운 교육환경은 비단 본교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낙후한 이 지방의 敎育文化 창달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첨단과학 기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학문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학문적 연구업적이나 결과가 곧 사회의 발전과 이어지는 産學協同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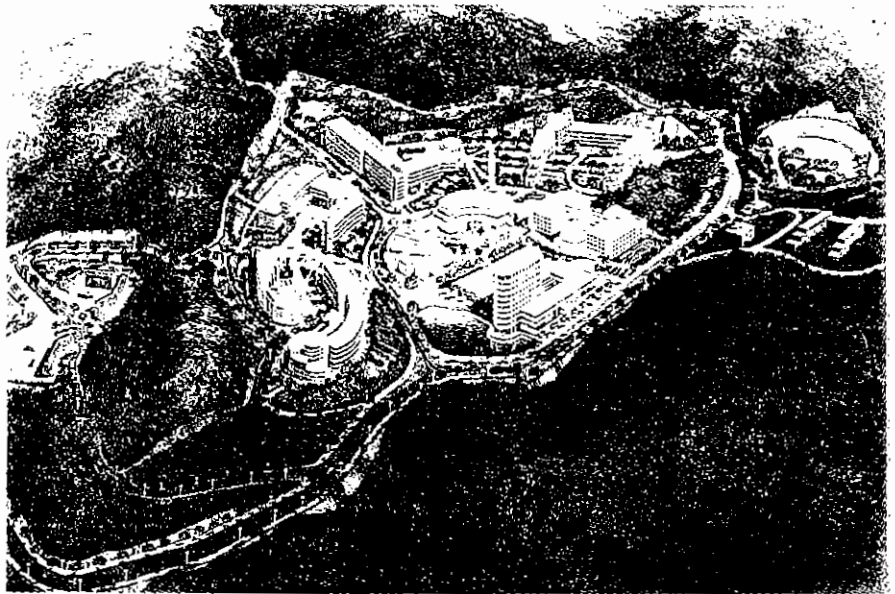
2) 心理的 環境 측면

본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여성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려 본교의 백양 캠퍼스 신축교사는 전체적으로 모난 구석이 없는 둥근 형태의 건축양식을 고집하고

있다. 건축설계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環境에서 아름다운 人格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의식이 그러한 건축설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을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는 물론 그 건물에서 생활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하려는 敎育的 意圖가 숨어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극소화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과 함께 본교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교육 場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본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환경 조성에 힘쓰려고 한다.

첫째, 부산·경남지방 유일의 女性敎育 요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 풍토조성에 힘쓰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성교육에 소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교육에 대한 편견은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며 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遠因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향적 敎育觀은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원인이 본교의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質的 수준의 向上

아름다운 敎育 環境을 조성하여 眞·善·美·信·愛의 인격함양과 낙후된 이 지역의 敎育文化 창달에 힘쓰고자 한다 (사진은 부산 여대 이전 조감도).



외에는 없으며, 선의의 競爭風土를 조성하여 개인적 발전은 물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년학풍토 조성을 위한 尖端科學 기자재의 도입과 수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教授方法의 개선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년학분위기의 조성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내 구성원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학기금의 확충이나 새로운 첨단과학 기자재의 수업활용 등은 학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새로운 학습자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년학분위기가 서서히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교운동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본교의 기획실을 대폭 강화하여 학교의 발전전망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세우려고 한다. 企劃室의 기능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대학 발전 전반을 기획하고 대학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人的 資源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2000년대 부산여자대학교의 位相 定立과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획실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본교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계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단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의 自律性을 높이고 운영의 民主化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대학의 자유는 대학 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인의 자유와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본교에서는 研究의 자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教授의 자유, 그리고 연구된 지식을 통해 사회에 奉仕하는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학원내의 자율적 분위기를 제고함은 물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僉遊人들의 의지를 실천하려고 한다.

4. 향후 學校運營 計劃

앞으로 본교는 오늘날까지 수련인들이 이루어 놓은 學內 民主化의 의지에 따라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교에서는 이미 '88년에 직선학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활동은 그것이 教育的 價値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나아가서 이들의 창의적 활동과 년학분위기 조성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원과 같은 社會教育機關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에도 일조함으로써 奉仕하는 大學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의 확보는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직업보도활동을 강화하는 노력도 아울러 경주함으로써 2000년대 부산여자대학교의 웅대한 꿈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 ■